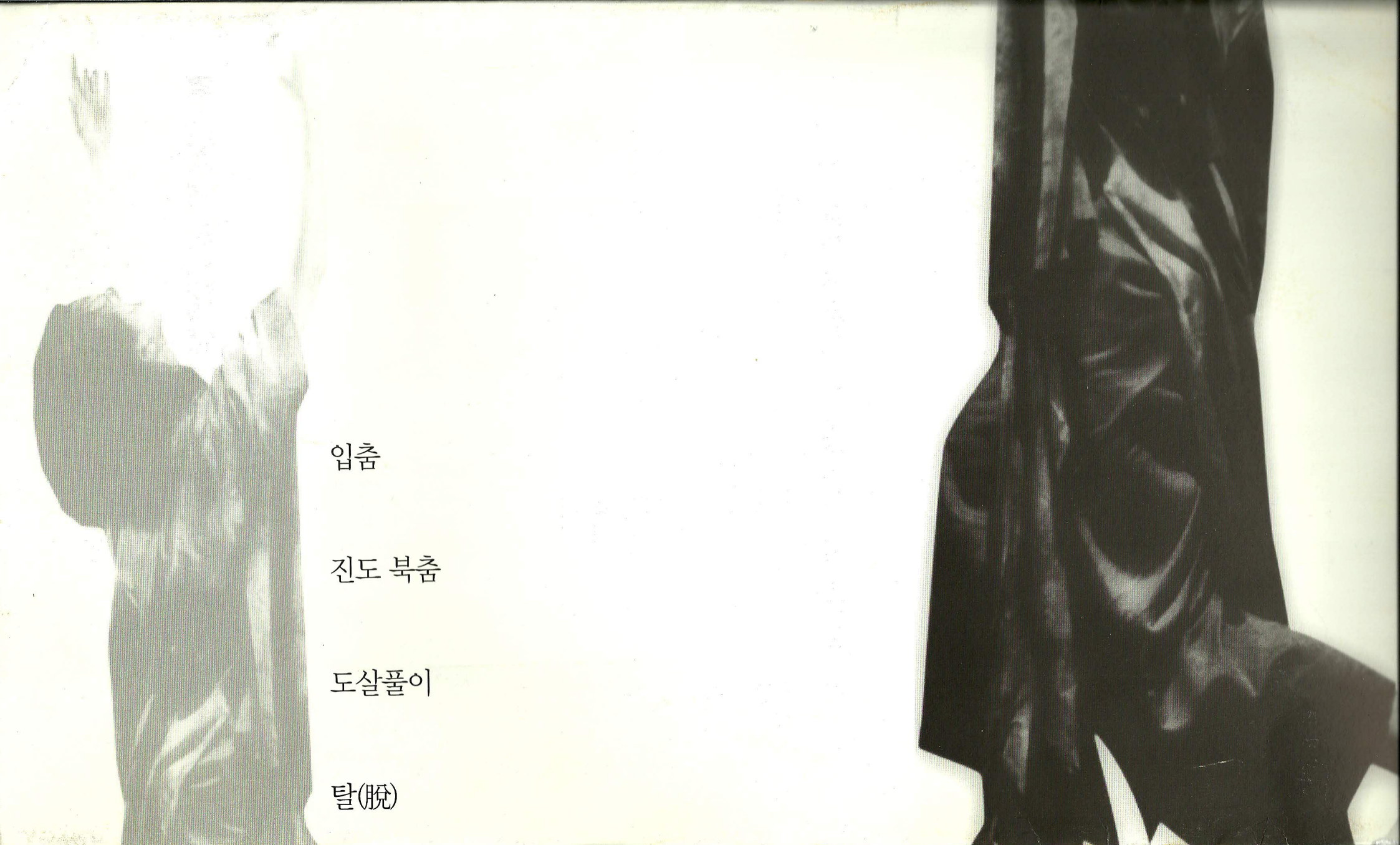


이한순의 춤

미로에서 탈출할
눈부신 날개의 꿈을...





입춤

진도 북춤

도살풀이

탈(脫)

2002.11.4(월) p.m.7:30 금정문화회관 소강당

격려의 글

지금 한사람의 춤꾼이 거대한 고행의 바다로 춤의 여행을 위해 항해를 시작하려 합니다. 설레임과 두려움은 가슴 속에 묻은 채 미지의 세계를 향한 경이로움과 동경만이 그녀의 첫 출발에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그 동안의 작업이 춤의 가장자리를 배회한 것이었다면 이번 항해는 춤의 본질로 향한 외롭고 모험적인 긴 여행이 될 것입니다. 곧 험난한 자연의 도전 속에서 희망적이었던 생각들이 부정적으로 바뀌겠지만 이 또한 삶의 값진 교훈을 얻기 위한 가치있는 도전이라는 것을 알게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잔잔하고 평온하기만한 바다가 언제 검푸른 거센 파도로 밀려와 이 배를 삼켜버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변화무쌍한 자연의 섭리에 살아남는 방법을 아는 것이 춤을 아는 것이고 삶을 아는 것입니다. 진정한 춤꾼이 되기 위한 춤에의 과감한 도전, 머지 않은 항해를 통해 춤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살맛나는 삶인가를 알게 될길 바랍니다.

이한순의 첫 공연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예술감독
강미리

현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교수

“인간의 내면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몸의 언어를 貫流 할 때이다.”

일찌기 희랍의 어느 철학자는 언어가 개발되기 이전부터 사람 사이의 감정을 고유하고 고귀한 수단으로 부드러운 몸짓의 육체 언어를 찬양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춤은 한낱 공허한 덧없음이 아니라 생명이 고동치는 현장, 혼을 불사르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느 무엇보다도 고귀한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나'를 버리고 '너'를 버린 우리의 모습으로 그리고 다시 '우리'를 공간 속에 투명한 춤사위를 그어낼 것입니다.

아직 설익고 덜 영근 열매처럼 부족함이 많은 무대이지만 춤에 대한 사랑을 모아 준비하였습니다.

언제나 아낌없는 격려와 보살핌으로 정직한 춤꾼이 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신 강미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작업을 함께한 단원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연을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올 끈게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가르침과 격려로 이 자리를 빛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귀함을 나눌 때 더욱 값지다는 사실을 믿으며...



이한순

2000. 02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졸업

2002. 02 동대학원 졸업

전, 2002년 부산아시아 경기대회 폐막식 보조안무

현, 부산대학교 연구조교

예술감독 · 강미리 의상 · 아라가야, 신의상실 무대, 조명 · 심문섭 음악편집 · 고덕주

미로에서 탈출할 눈부신 날개의 꿈을...

Lee Han Soon's Choom

I 입춤

출연자 : 이한순

전통 민속무용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굿거리 춤이다. 진주 교방의 관기들에 의해 추어졌던 진주 검무와 함께 이 입춤은 최완자 선생으로부터 김수학 선생에게로 전해져 진주 지방 문화재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입춤은 굿거리 장단의 하나인 3분박으로 조금 느린 4박자로 외마치 질긱보다 조금 빠른 박자로 자진 타령가락으로 시작하여 엽불가락에서 타령 가락보다 자진 가락이 많이 들어가며 동작이 훨씬 복잡하고 즉흥적인 것을 표출하는 춤의 하나로 굿거리 입춤 끝에 소고를 들고 추는 즉흥은 더욱 일품이다. 또한 한국춤의 네가지 요소인 한-흥-멋-태를 고루 갖춘 춤으로서 차분하면서도 끈끈하고 섬세하면서 애절한 무태로서 정-중-동의 신비롭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어 무아지경으로 이르게 하는 매력을 갖추고 있는 춤이다.

진도북춤

출연자 : 권해정, 안주희, 이해진 반주 : 김현일 외 4명

진도 북춤은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두 개의 북가락을 사용한다. 양손에 북가락을 나눠들고 나는 듯 머무르는 듯 몰아치고 되돌아가는 멋이 천길 낭떠러지에 내리꽂히는 물줄기처럼 시원하고, 휘돌아 흐르는 계곡의 장난스런 물줄기처럼 간드러진 멋이 있다. 북춤은 북가락이 초장, 중장, 말장으로 구성된 굿거리와 덩턱쿵이, 동살풀이, 살풀이, 자진모리로 짜여져 있으며, 멋을 부리는 동작은 북을 대삼소삼으로 어르는 동작과 양손을 옆으로 펴고 제 자리에서 정지되고 어깨춤을 주거나 장단과 장단사이에서 진가락을 구사하여 감정을 풀어내는 동작이라 할 수 있다.

도살풀이

출연자 : 이한순

도살풀이 춤은 도당 살풀이를 줄인 말로서 민속무의 하나로 행해지고 있는 살풀이춤의 원형이다. 이 춤의 본 뜻은 흥살과 재난을 소멸시켜 안심입명(安心立命). 나아가 행복을 맞이한다는 종교적 소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도살풀이 춤은 자연스럽고 소박하며, 삶의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 긴 수건에 의해 공간상의 유선이 다양한데, 선이 그려지는 형태는 소박한 화폭과도 같다. 도살풀이 춤의 무복은 무색으로 화려하지 않으며, 정결하고 깨끗하다. 이 춤은 각기 정중동, 동중정의 신비롭고 자유로운 춤사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목젓놀이, 발차는 사위, 용사위, 낙엽사위 등은 유일한 독무로 독특한 선, 다양한 춤사위 등의 예술성이 높이 평가된다. 이 춤은 중요 무형 문화재 제97호 김숙자류 살풀이 춤으로 지정되어 있다.

II 탈(脫)

안 무 : 이한순

출연자 : 이한순 김기하 박인영 백은진 신지영 신지현 윤혜진 장은실 흥연희

작품내용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꼬불꼬불 산길, 끝도 한계도 없는 속도를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누구도 이 속도를 벗어나 살수는 없다. 속도를 개발하고 속도를 추구하면서 속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어떤 구속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누구나 열반을 꿈꾸고 살지만 '나'도 모르게 세속적인 번뇌와 갈등 속에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다.

이러한 삶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현실의 구속들을 벗어버림으로써 어떤 해방감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이 작품은 인간의 정신적 갈등과 인고, 인간 본연의 고뇌를 상상력의 차원으로 승화하여 우리의 전통적인 움직임을 현대적 표현기법으로 형상화 한 것이다.

- I.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보라
- II. 고요속의 평정을 향해 자아를 뒤집어 보라
- III. 내 귓속에 울리는 메아리를 나는 들노라

작품의도

몸은 순수한 생명의 실체이다. 흔히 말하는 미완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완성의 완결인 것이다. 몸이 내는 소리와 몸을 이루고 있는 몸으로 세상의 경계를 지우고 몸으로 새로운 내일을 향한 길을 내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2002.11.4(월) p.m. 7:30 금정문화회관 소강당